

보건복지 ISSUE & FOCUS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의 현황과 정책 과제¹⁾

신윤정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희망하는 출산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의 실현에 대한 연구가 요청되고 있음. 본고는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은 무엇이며, 계획한 출산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지, 그리고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을 기반으로 미래 출산율을 전망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지를 살펴보았음.
- 분석 결과, 주관적 규범이 출산 계획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인식된 통제는 가장 약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계획한 출산을 실현하는 데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음.
- 실효적 기대 자녀수가 코호트 완결 가족 크기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이상 자녀수와 기대 자녀수는 출산율을 추계하고 장래 인구 모습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01. 서론

◆ 최근 저출산 대응 정책은 합계출산율의 상승을 목표로 하였던 것에서 벗어나 저출산의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초점을 두고 전 생애에 걸쳐 삶의 질을 제고하는 종합적인 정책으로 확대되었음(「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0년 12월).

- 저출산 대응 정책은 희망하는 출산과 실제 출산 간의 차이를 좁히는 데 정책 추진의 당위성이 있으며 희망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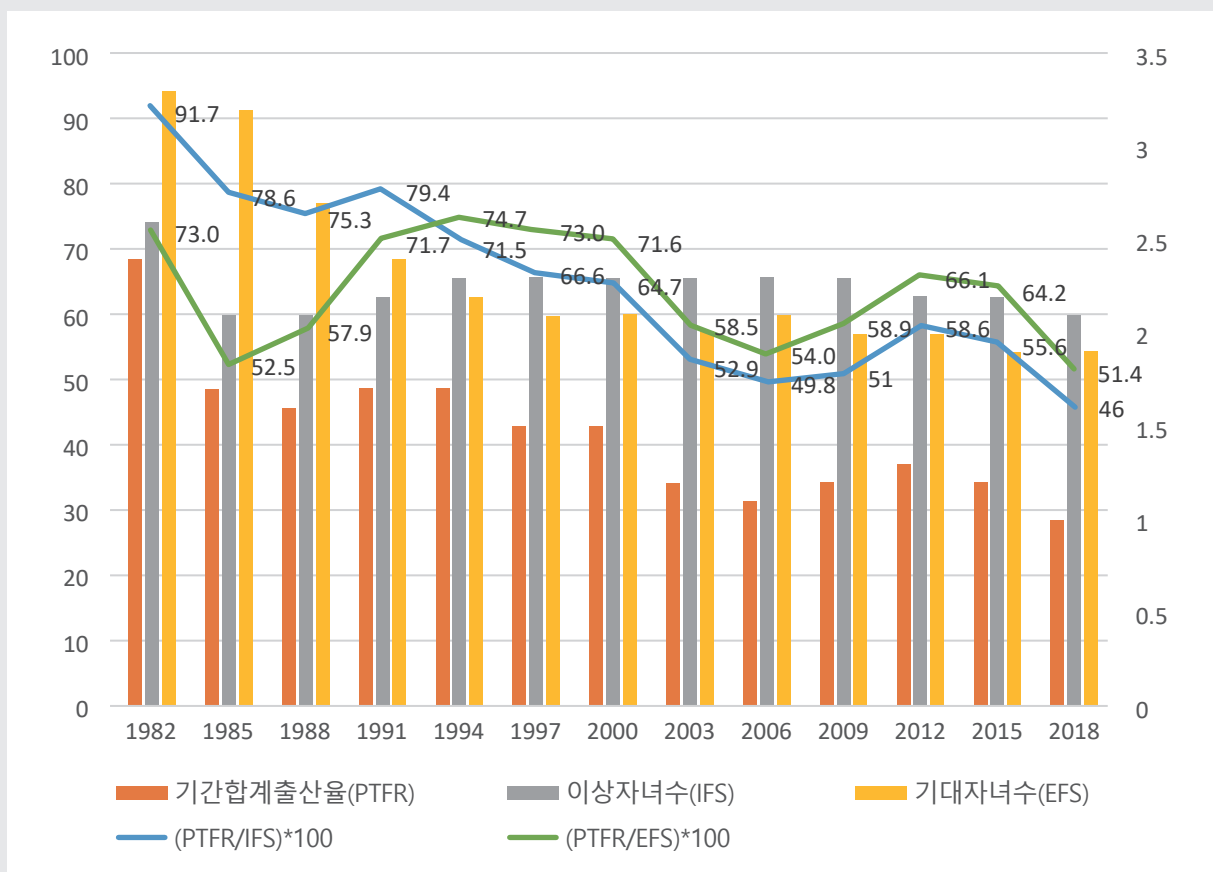
1) 본고는 '신윤정, 이명진, 전광희, 문승현. (2020).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음.

출산의 실현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은 향상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이상 자녀수와 기대 자녀수는 1982년 이래 지속적으로 기간 합계출산율 수준 이하를 밀도는 경향을 보여 왔음(그림 1).

- 희망하는 출산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국내 저출산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요청되고 있음.
- ◆ 효과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출산 의향이 형성되고 실제 출산으로 이어질 때까지의 과정에서 작용하는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함.
- 저출산 대응 정책은 국민이 희망하는 출산을 실현하지 못하는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그림 1] 기간 합계출산율 대비 이상 자녀수/기대 자녀수의 비율: 1982~2018년



주: 30~34세 기혼 여성의 이상 자녀수/기대 자녀수

자료: 이상 자녀수와 기대 자녀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974~2018년, 기간 합계출산율은 통계청 국가통계서비스 포털 자료, 신윤정 외 (2020) [그림 4-1] 191p. 에서 재인용

- ◆ 본고는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은 무엇이며, 계획한 출산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을 기반으로 미래 출산율을 전망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지 살펴보았음.²⁾
 -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모형화한 ‘Theory of Planned Behavior(TPB)’와 ‘Traits-Desires-Intentions-Behavior(TDIB)’를 25~39세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수집한 온라인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함.
 - 여성가족패널 2~8차(2008~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이 출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으며 계획한 출산의 실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무엇인지 파악함.
 -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1974~2018)」(이하 ‘출산력 조사’)와 「인구 센서스(2005, 2010, 2015)」에서 조사된 이상 자녀수와 기대 자녀수를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장래인구추계의 코호트별 완결 가족 크기를 비교하여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이 가지고 있는 출산율 예측 타당성을 검증함.

02.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

- ◆ 2차 인구학적 변천이 일어난 이후 출산 의사 결정은 재정적인 제약뿐만 아니라 양성 평등, 개인의 자율권, 자아실현에 대한 열망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시각이 대두되었으며, ‘선호’가 출산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게 되었음.
- ◆ 선호 체계를 반영하여 출산 결정 과정을 모형화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Theory of Planned Behavior(TPB)³⁾’와 ‘Traits-Desires-Intentions-Behavior(TDIB)⁴⁾’가 있음.
 - TPB에 따르면 자녀를 낳을 것인지, 낳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의도는 행동적 신념, 규범적 신념, 통제된 신념의 영향을 받음.⁵⁾
 - TDIB는 자녀 출산이 출산 동기로부터 시작되며 개인적인 성향, 심리적인 특성, 생애사 발달 과정과 결합하여 자녀 출산에 대한 욕구로 이어지고, 개인은 가능한 선택과 자원을 고려하여 출산 의도를 형성함.⁶⁾

2) 장래 출산율 추계는 대부분 과거 코호트의 출산 실적치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코호트가 과거 코호트의 출산 궤적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과거 출산 실적치 자료는 미래 출산율을 전망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출산 의향 혹은 출산 계획이 미래 출산율을 전망하는 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대안적인 출산율 추계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모색해 보았다.

3) Ajzen, I., & Klobas, J. (2013). Fertility intentions: An approach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Demographic research, 29., pp. 203-232.

4) Miller, W. B. (1994). Childbearing motivations, desires, and intentions: A theoretical framework.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20(2), pp. 223-258.

5) Ajzen과 Klobas(2013)에 따르면 행동적 신념은 자녀 출산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에 대한 인식이며, 규범적 신념은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주변 사람 혹은 집단이 가지고 있는 기대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고, 통제된 신념은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존재한다는 개인적인 인식임.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인 규범이 더 호의적일수록, 그리고 인식된 통제력이 더 강할수록 개인은 더 높은 출산 의도를 형성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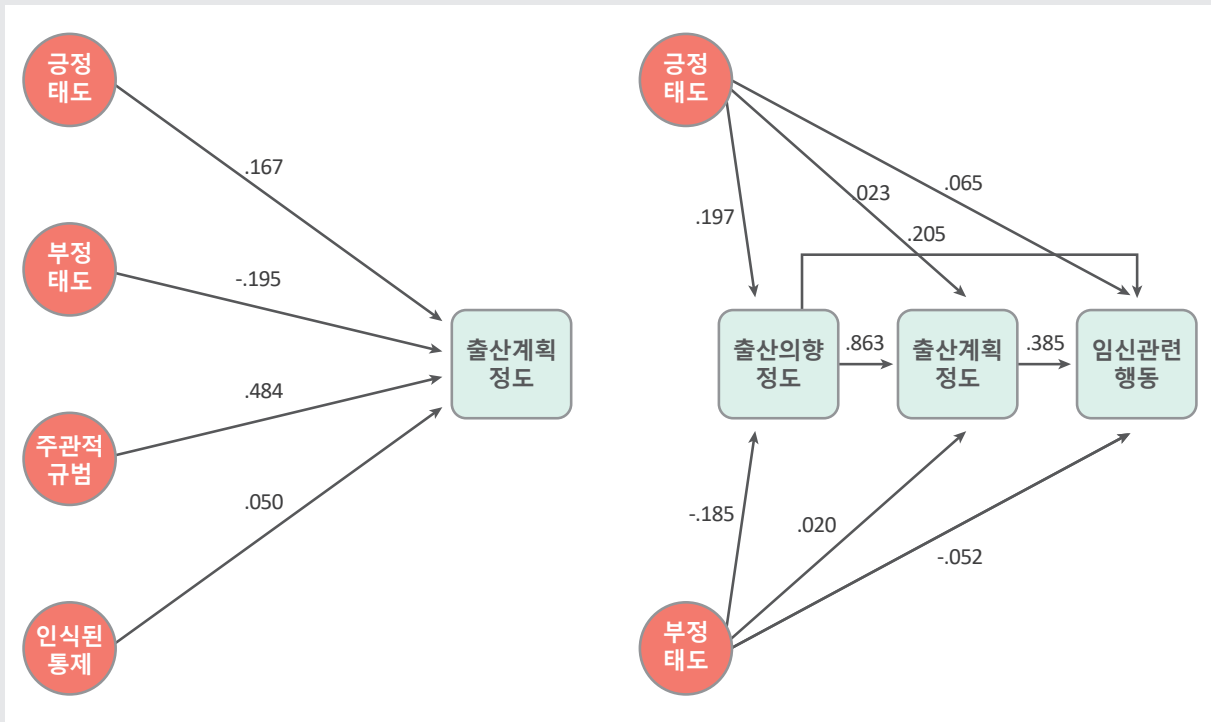
6) Miller(1994)는 출산 동기가 출산의 다양한 측면에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긍정적 동기와 비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정적인 동기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보았음. 자녀 출산 동기는 자녀 출산 의향을 예견할 수 있는 선행 지표이며 긍정적 동기를 보인 사람들이 실제로 자녀를 갖기 위한 절차에 들어감.

- ◆ 25~39세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2020년 6월 18~28일 사이에 온라인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TPB와 TDIB 모형을 검증함.
 -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에 대한 질문 문항은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GGS)」 1차 연도 조사(2003~2006)⁷⁾와 Miller(1995)의 「Childbearing Questionnaire(CBQ)」⁸⁾를 적용하여 구성함.
 - 구조 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이용하여 TPB와 TDIB 모형을 추정
- ◆ TPB 모형 분석 결과, 부모, 친구, 친척의 출산에 대한 압력이라고 볼 수 있는 주관적 규범이 출산 계획에 미치는 가장 강한 요인으로 나타났음.
 -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긍정적 태도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그 영향의 강도는 주관적 규범에 비해 절반 정도의 영향만을 가지고 있었음.
 - 사회경제적인 상황과 정부 정책이 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인 인식된 통제는 가장 약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음.
- ◆ TDIB 모형에서 임신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출산 계획이며, 출산 의향은 그 다음으로 강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는 임신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통해 더 강한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구 사회에서 자녀에 대한 태도가 임신 행동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다소 다른 연구 결과를 보여 주었음.

7) Gender & Generation Programme Consortium Board. (2003).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Core Questionnaire for Wave 1.

8) Miller, W. B. (1995). Childbearing motivation and its measurement.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27(4), pp. 473-487.

[그림 2] 구조 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TPB 모형과 TDIB 모형 추정 결과



주: 경로 위에서 표준화 계수가 제시됨.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외 (2020) [그림 2-10] 98p., [그림 2-11] 106p. 에서 재인용

03. 출산 계획의 실현 분석

◆ 여성가족패널 2~8차(2008~2018)의 자료를 이용하여 2년 이내에 출산할 계획이 있는 15~49세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 실현 여부와 이에 미치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을 분석함.⁹⁾

- 2년 이내에 출산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959건 중에서 약 30%(288건)가 2년 이내에 출산을 하였으며, 약 70%(671건)가 2년 이내에 출산하지 않았음.
- 출산을 실현하지 못한 여성 중 29.4%(197건)는 여전히 출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37.9%(254건)는 출산을 포기하였고, 22.9%(220건)는 미결정 상태에 있었음.

.....

9) 막연한 계획보다 구체적으로 기간을 명시한 계획이 보다 확실한 계획이며(신윤정 외, 2020), 먼 장래 보다는 가까운 미래의 계획이 보다 현실성 있는 계획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GGS도 3년 이내의 출산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여성가족패널은 매 2년 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각 조사 연도에서 2년 이내에 출산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여성이 다음 번 조사 시점에서 출산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함으로써 통해 2년 이내 출산 계획의 실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각 조사 연도에서 2년 이내에 출산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들이다.

〈표 1〉 2년 이내 출산 계획자의 2년 이내 출산 실현 빈도

(단위: 건, %)

기간	2년 이내 출산 계획자	실현자	연기자	포기자	미결정자
2008~2010년	293 (100.0)	94 (32.1)	65 (22.2)	78 (26.6)	56 (19.1)
2010~2012년	197 (100.0)	55 (27.9)	43 (21.8)	49 (24.9)	50 (25.4)
2012~2014년	162 (100.0)	52 (32.1)	35 (21.6)	43 (26.5)	32 (19.8)
2014~2016년	115 (100.0)	39 (33.9)	26 (22.6)	26 (22.6)	24 (20.9)
2016~2018년	192 (100.0)	48 (25.0)	28 (14.6)	58 (30.2)	58 (30.2)
계	959 (100.0)	288 (30.0)	197 (20.5)	254 (26.5)	220 (22.9)

주: 2년 이내에 출산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중에서 2년 이내에 출산한 여성은 실현자, 2년 이내에 출산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중에서 2년 이내에 출산하지 않았으나 여전히 출산 계획이 있는 여성은 연기자, 출산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은 포기자, 출산 계획에 대한 질문에 “모르겠음” 혹은 응답하지 않은 여성은 미결정자로 정의함.

자료: 여성가족패널 2차(2008년)~7차(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신윤정 외 (2020) 〈표 2-7〉 135p. 에서 재인용

◆ 로짓 모형과 다항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2년 이내 출산 계획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학적인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¹⁰⁾

-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산을 실현하거나 출산을 연기할 확률은 낮아지고 출산을 포기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을 연기하는 경향은 낮아지고 점차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강해져 결과적으로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
-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 비경제활동 여성보다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은 작지만 출산을 연기할 가능성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경제활동이 출산을 실현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지만, 출산을 실현하지 못한 경우 경제활동은 출산을 포기하기보다는 출산을 연기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이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에 비해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이 더 크고 출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 고학력 여성이 저학력 여성보다 출산율 수준이 낮다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별개로, 본인이 계획한 출산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대졸 여성이 고졸 여성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줌.
 -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들이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보다 계획한 출산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원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음.

10) 로짓 모형 추정 결과는 〈표 2〉 참조. 다항 로짓 분석 결과는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본 고에서 소개하지 못했으며 신윤정 외(2020) 〈표 3-21〉과 〈표 3-22〉 참조 바람.

- 중산층 혹은 중하층 집단이 저소득층보다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이 더 작았으며 출산을 실현하지 못한 경우에 출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소득과 출산 간에 U자형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¹¹⁾
- 최근에 와서 출산을 계획한 여성이 과거에 출산을 계획한 여성에 비해 출산을 연기하기보다는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의 심화되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이 계획한 출산의 포기에 의한 부분이 크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음.
- 출산 계획 당시 자녀가 1명 있었던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이 더 큰 반면에, 출산을 연기하거나 미결정할 가능성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 자녀가 있는 여성이 없는 여성보다 출산 실현 혹은 출산 포기와 같은 더 확실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가 없는 여성이 자녀가 있는 여성보다 출산 연기나 출산 미결정과 같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함.
 - 자녀가 있는 여성은 자녀를 양육한 경험에 따라 자녀 때문에 생기는 혜택이나 불이익을 잘 알므로 출산 실현이나 출산 포기와 같은 더 확실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 자녀가 없는 여성은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없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여성보다 더 유보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음.

.....

11)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정도는 경제적인 능력과 함께 자녀의 질(Quality)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산층 혹은 중하층 부모가 자녀의 질에 대해 높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소득 수준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을 충족할 수 없을 경우 출산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수 있다.

〈표 2〉 2년 이내 출산 계획의 실현에 대한 로짓 모형 추정 결과¹²⁾

변수		실현자	연기자	포기자	미결정자
상수항		1.418 (0.581)	0.1634 (0.698)	-4.390 (0.699)	0.672 (0.652)
연령		-0.075*** (0.018)	-0.068*** (0.020)	0.093*** (0.019)	-0.031 (0.019)
자녀수	0명	-	-	-	-
	1명	0.329* (0.171)	-0.546*** (0.207)	1.212*** (0.216)	-0.591*** (0.194)
	2명 이상	-0.126 (0.227)	-0.472* (0.255)	1.344*** (0.256)	-0.855*** (0.255)
경제활동	하고 있지 않음	-	-	-	-
	하고 있음	-0.422** (0.167)	0.496** (0.197)	-0.082 (0.191)	-0.379** (0.193)
학력	고졸 이하	-	-	-	-
	대졸 이상	0.413** (0.165)	0.241 (0.199)	-0.355* (0.185)	0.134 (0.187)
가구 소득	0~2500만 원	-	-	-	-
	2501만 원~3600만 원	-0.123 (0.196)	-0.574** (0.256)	0.517** (0.237)	-0.052 (0.239)
	3600만 원~5000만 원	-0.377* (0.221)	0.146 (0.253)	-0.007 (0.260)	-0.189 (0.256)
	5000만 원 이상	-0.158 (0.238)	-0.297 (0.289)	0.097 (0.284)	0.146 (0.278)
기간	2008~2010년	-	-	-	-
	2010~2012년	-0.051 (0.210)	-0.100 (0.251)	-0.199 (0.246)	0.277 (0.244)
	2012~2014년	0.185 (0.223)	0.003 (0.274)	0.124 (0.267)	-0.098 (0.277)
	2014~2016년	0.296 (0.250)	0.010 (0.310)	-0.073 (0.312)	0.059 (0.311)
	2016~2018년	-0.124 (0.237)	-0.840*** (0.299)	0.357 (0.273)	0.363 (0.267)

주: 1. 표 안의 수치는 추정 계수, 괄호안은 표준편차

2. * : p<0.1, ** : p<0.05, ***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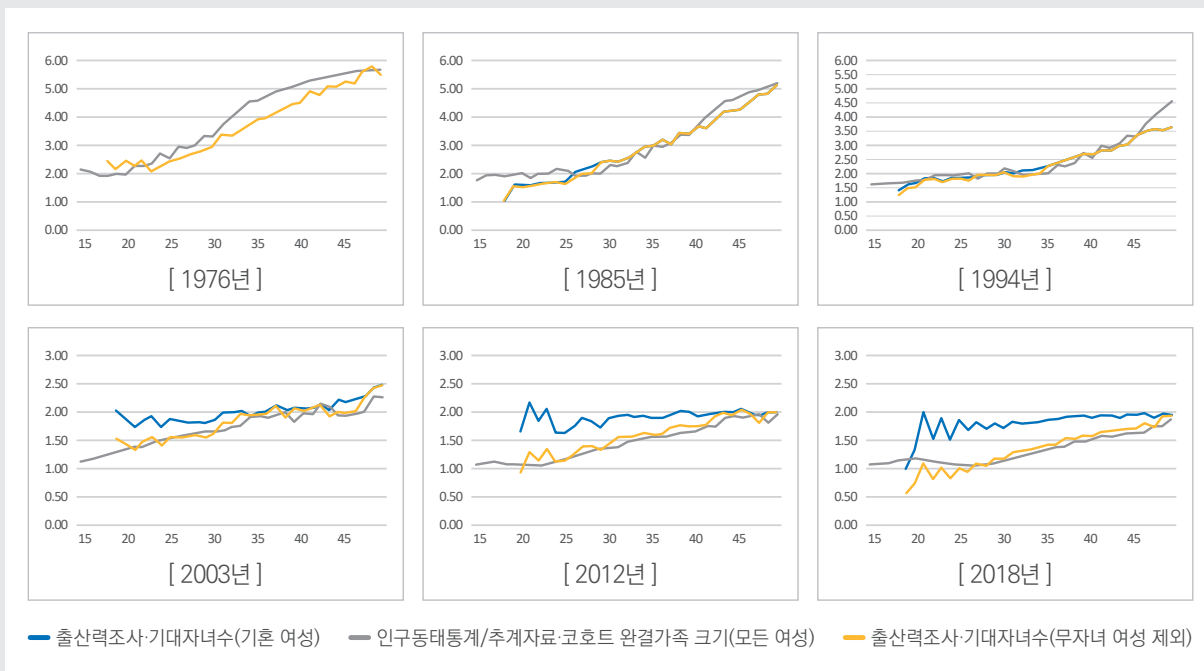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패널 2차(2008년)~7차(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신윤정 외 (2020) 〈표 3-17〉 154p., 〈표 3-18〉 157p., 〈표 3-19〉 158p., 〈표 3-20〉 159p.에서 재인용

12) 실현자 모형은 2년 이내 출산을 계획했던 사람 중에서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사람은 1 값을,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사람은 0 값을 가짐. 연기자 모형은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출산 의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 값, 나머지 비실현자들이 0 값을 가짐. 포기자 모형은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고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사람이 1 값, 나머지 비실현자들이 0 값을 가짐. 미결정자 모형은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고 자녀 출산에 대해 "모르겠음" 혹은 무응답한 사람이 1 값, 나머지 비실현자들이 0 값을 가짐. 자세한 분석 모형과 방법론은 신윤정 외 (2020) 145~152p. 참조 바람.

04.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의 출산율 예측 타당성 분석

- ◆ 최근 코호트가 과거 코호트와 차별적인 출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 자녀수 혹은 기대 자녀수를 기반으로 한국 사회의 출산율 전개 방향을 예견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음.
- ◆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이 미래 출산율을 전망하는 데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였음.
 - 최근 만혼화와 비혼화를 고려하여 출산력 조사와 인구 센서스에서 나타난 15~49세 기혼 여성의 이상 자녀수와 기대 자녀수에 50세까지 무자녀로 남아 있는 여성을 제외한 비중을 적용하여 실효적 이상 자녀수와 실효적 기대 자녀수를 산출함.
- ◆ 실효적 이상 자녀수 및 실효적 기대 자녀수를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장래인구추계의 코호트별 완결 가족 크기와 비교한 결과, 특히 실효적 기대 자녀수와 매우 근접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 초저출산 시대에서 최근 코호트의 이상 자녀수 및 기대 자녀수를 기반으로 미래 출산율 전개 방향을 전망하고 장래 인구 모습을 예측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됨.

[그림 3] 출산력 조사의 실효적 기대 자녀수와 코호트별 완결 가족 크기 연도별 비교: 1976~2018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976~2018년, 권태환(1997, pp 13~56)의 1960~1990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서비스 포털 자료. 신윤정 외 (2020) [그림 4-10] 228~232p. 에서 재인용

05. 결론

- ◆ 우리나라에서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은 주변으로부터의 압력이라고 할 수 있는 '주관적 규범'임.
 - 초저출산에 따라 두 자녀 이상을 낳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한 자녀 혹은 무자녀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도래할 경우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더욱 굳어질 가능성이 있음.
- ◆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력이 출산 패러티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 저출산 대응 정책은 출산 패러티별로 차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아를 출산한 여성들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갖지 않도록 자녀를 처음 출산한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공
 - 자녀 없는 여성들이 자녀 출산과 양육에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임.
- ◆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책적인 환경이 출산 계획을 실현하는 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 출산과 자녀 양육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 집단이 희망하는 출산을 실현하는 데 상대적으로 큰 제약을 가지고 있어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저출산 대응 정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 이상 자녀수와 기대 자녀수는 인구 추계를 위한 출산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임.
 - 이상 자녀수/기대 자녀수와 실제 출산아 수와의 차이를 보정하는 작업을 통하여 출산율 예측 정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혼인 의향에 대한 자료를 함께 축적하여 장래 인구 추계에 응답자의 출산 의향 및 출산 의도를 고려하는 추계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집필 신윤정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문의: 044-287-8137